

문화선교연구원 주최
2020 온택트 문화포럼

예배자, 온라인을 만나다

: 온라인 교회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논의

2020.10.20.(화) 저녁 7:30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채널  문화선교연구원

 양희삼TV-카타콤

문화선교연구원 주최
2020 온택트 문화포럼

〈예배자, 온라인을 만나다 : 온라인 교회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논의〉

【 진행 】

신학적 모색 발제1	“디지털 컨택트 시대, 교회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상상하라” 백광훈 문화선교연구원 원장
신학적 모색 발제2	“교회 밖 예배를 위한 예전적 제언” 안덕원 햇불트리니티신학교 교수
실천적 모색 발제1	“온라인 교회는 가능한가?” 양희삼 카타콤교회 담임목사
실천적 모색 발제2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서” 조주희 성암교회 담임목사
실천적 모색 발제3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종현 만나 미디어교회 담당목사
종합토론	발제자, 온라인 참여자

【 목차 】

진행 ... 1

목차 ... 2

신학적 모색-발제1

디지털 컨택트 시대, 교회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상상하라 / 백광훈 ... 3

신학적 모색-발제2

교회 밖 예배를 위한 예전적 제언 / 안덕원 ... 6

실천적 모색-발제1

온라인 교회는 가능한가? / 양희삼 ... 15

실천적 모색-발제2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서 / 조주희 ... 17

실천적 모색-발제3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 이종현 ... 21

【 신학적 모색 - 발제1 】
디지털 컨택트 시대, 교회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상상하라

백광훈 문화선교연구원장
장로회신학대학교 초빙교수·기독교와문화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의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아마도 예배의 문제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 현장예배의 중단이 예배의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었다면, 이제 교회의 예배는 비대면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예배의 상시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교회 예배 정상화에 최대 3-4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이제 온라인 교회를 부수적인 과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학계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 더 나아가 온라인 교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점화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8-90년대, 기타나 드럼을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냐와 같은 논의, 혹은 주 5일제에 대한 논의와는 달리 대안적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찬반 논의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온라인 성찬이나 세례 같은 문제는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나 교회됨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실천들이 필요한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온라인 교회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습니다. 1990년대 영미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온라인 교회는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이른바 디지털 세대로 명할만한 밀레니얼과 Z세대의 등장과 더불어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교회에 대한 실험과 실천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교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먼저 기존 오프라인 교회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형태들(매주 수천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이랜드 처치, 노스포 인터커뮤니티 처치, 새들백 처치나 갈보리 처치 등 대형 교회나 기성 교회들의 접근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을 시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6년에 차고에서 시작된 온라인 교회 라이프닷 처치(Life.Church)는 현재 매주 7만여 명이 모여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구역이나 셀, 속회에 해당하는 '인터넷 캠퍼스'를 열어 성공적으로 온라인 교회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크고 작은 다양한 온라인 교회들의 시도들을 소개하는 프리미어 디지털 서비스(premier digital service: www.premierdigital.info)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교회들의 시도를 보여주고, 이와 관련한 세미나 및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정신은 디지털 공간에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물리적 만남과 온라인 참여의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다양한 하이브리드적 교회들의 실천사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갑작스럽게 맞이한 뉴노멀의 상황에서 온라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와 온라인의 건설적인 만남은 어떤 형태일 수 있을까요.

온라인 교회는 설교를 스트리밍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온라인 교회가 단지 기존 예배를 스트리밍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개념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매클루언의 말대로 미디어는 그 자체로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맞는 새로운 콘티를 작성해야 하고, 설교의 형태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개 온라인 설교의 길이가 20분에서 30분 사이가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주의가 산만해지기 쉬우므로 메시지는 더욱 단순 명확해야 합니다. 눈 맞춤이 더욱 중요해지고 몸의 움직임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배 외에도 줌(zoom)과 같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을 통해 코이노니아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온라인 교회 안 교육과 훈련을 위한 소그룹 모임 구축도 필요합니다. 교회학교의 온라인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교회학교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한 예배 및 반별 교육, 디지털 콘텐츠 확보 등 오프라인 환경에 버금가는 노력이 요청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구체적인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발상의 전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교회로의 전환은 제자도의 새로운 존재 방식들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온라인 교회로의 전환은 단순히 오프라인 교회의 연장이 아니라 교회됨의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밀레니얼과 Z세대들을 주축으로, 오프라인이 중심이 아닌 온라인이라는 또 다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의 양상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세계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며 중심으로 모이는 새로운 세대들은 새로운 예배,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소통 방식과 공동체를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AR(증강현실)이나 VR(가상현실) 같은 기술의 진보는, 그들로 하여금 온라인 세례나 온라인 성찬 같은 논쟁적인 예전 방식을 기독교 제자도의 표현방식으로 채택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통과 권위에 매이지 않는 세대에게 디지털 공간은 기독교 제자도 실천의 혁신적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대학의 미디어, 종교, 문화 센터의 Stewart M. Hoover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종교의 변혁적 가능성이 제3의 공간(the Third Space)에서 보다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기성 전통종교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실천, 형성의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¹⁾

이러한 형태의 교회는 C. Helland의 고전적 유형론을 응용한다면 교회의 제도와 내용들을 구성원에게 확장하려는 탐다운 방식, 혹은 온라인을 수단으로 한정 짓는 ‘church online’을 넘어, 풀뿌리 신앙 공동체가 살아가는 온라인 공동체의 새로운 상호작용을 공유하고 영적 경험을 나누

1) Tim Hutchings, *Creating Church Online*(Routledge, 2019), 19.

는 ‘online church’가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²⁾

코로나19가 가져온 갑작스러운 온라인 교회로의 전환은 많은 고민과 전환적 과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교회 공동체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디지털이라는 정해진 미래를 준비하며, 대면이 아닌 비대면 환경의 장기화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전환 속에서 온라인의 문법에 맞는 교회됨과 제자도의 방식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곧 교회의 주역이 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의 생활 세계의 방식들을 담아내는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담아내려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전자의 노력이건 후자의 시도이건 모두가 새로운 미디어와 세대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려는 온라인 성육신(incarnation)의 한 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겸손과 배려, 거룩한 상상력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됨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2) 위의 책, 264.

【 신학적 모색 - 발제2 】
교회 밖 예배를 위한 예전적 제언

안덕원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실천신학
저서 《우리의 예배를 찾아서》 등

자주 받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 교회 밖 예배의 가능성과 예배의 본질은?

개신교 예배는 하나의 기준을 갖기보다 교단과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용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무엇이 예배의 본질이어야 하고 불변적 요소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라는 가변적 요소에 연연하지 말고 예배의 불변적 요소,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요소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섯 가지로 예배의 본질을 소개합니다. 1)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2) 삶으로 번역되는 예배, 3) 파스카 신비의 구현, 4) 공적 속성의 구현, 5)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재현, 6) 다양성과 일치 조화와 균형.

1)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기독교 예배를 정의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는 바로 루터교 신학자 피터 브루너(Peter Brunner)가 사용했던 독일어 “Gottesdienst”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은혜)과 사람의 섬김(응답)이라는 상호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러한 의미는 수많은 유사한 예배의 정의들과 조우합니다.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는 이를 “계시(Revelation)와 응답(Response)”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³⁾ 수많은 정의에서 이렇듯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발견됩니다.

2) 삶으로 번역되는 예배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파송(sending forth)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수준 높은 삶의 양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포용의 윤리로,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축복하는 특이한 존재 방식으로 “경이로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전합니다.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 겸손하게 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증언하는 모든 삶의 국면과 내용이 바로 역사가 증명하는 예배의

3) James F. White,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Third Edition Revised and Expanded* (Nashville: Abingdon Press, 2000), 22~30.

4) 김기현, “나는 왜 네가 아니고 나인가?—‘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빛과소금〉 465 (2020. 8): pp. 130~135.

본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그 기준에 입각하는 삶이며 그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입니다.

3) 파스카 신비의 구현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부활의 신비를 표현하고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 공적 속성의 구현

예배는 공동체적입니다. 세례에서도 회중에게 묻는 순서가 있고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같은 음식을 먹는 식구임을 알려줍니다. 회중들이 앉는 자리가 네이브(nave)인데 그 단어의 기원은 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성도들이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드러냅니다. 설교 또한 회중을 전제로 합니다.

공예배가 제공하는 유익은 실로 대단합니다. 일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 언어에 자신을 노출하는 일입니다. 기도문과 시들, 송영과 감사의 언어들에 우리는 영적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도구가 됩니다. 평소의 지적 수준과 대화의 수준을 넘어서는 표현을 통해, 자신과는 다른 종류의, 혹은 다른 수준의 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고와 신앙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들은 거룩한 가치와 영성을 담고 있으며 예배의 공기는 평상시의 그것과 사뭇 다릅니다. 형식의 틀은 생각보다 견고하게 우리의 영성을 지켜줍니다. 구원의 역사를 부르심으로부터 파송까지 오롯이 담은 예배 순서는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자연스럽게 은혜와 소명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혼자서 매 주일 혹은 매일 예배드리면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분들도 결국 이웃을 만나 예배의 감동을 삶으로 나눔으로써 비로소 참된 예배를 삶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일정한 형식과 틀로 우리를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개인 예배를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신교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는 “개인 예배와 공동 예배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보편 교회의 예배를 공유하기 때문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fully corporate)”라고 설명합니다.⁵⁾ 보편적 교회론의 입장에서 개인 예배와 공동 예배를 상호 협조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재현

예배는 회고적이며 미래적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억(*anamnesis*)과 다시 오심의 기대와 재현(*prolepsis*)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억과 기대의 모티브는 예배와 교회가 시간과 공간

5) 제임스 F. 화이트, 《기독교 예배학 개론》, 김상구, 배영민 옮김 (CLC, 2017), p. 42.

의 제약 가운데 있지만 얽매이지 않고 초월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배를 “어디서”나 “언제” 드리느냐가 아닌 “무엇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6) 다양성과 일치의 조화와 균형

예배의 요소들의 실천방식에는 불변적 원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가 본질적 요소이기는 하나 세례의 장소와 물의 양에는 다양성이 보장되며, 성찬에 대해서도 다양한 신학적 이해와 집례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식의 기초에는 예배의 의미와 본질이 놓여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교회와 예배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오히려 매우 고무적이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불필요하거나 왜곡된 기준이나 실천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 교회 밖에서 드리는 개인 예배나 가정예배의 존재 이유와 사례는?

성 다미안 (St. Peter Damian/Pier Damiano, 1007-1072)의 경우가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수도자들, 은둔자들의 경건 행위를 단순히 개인적인 수련이 아니라 보편적 교회 안에서 전 세계의 성도들과 함께 하는 예배 행위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⁶⁾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편재성과 예배 행위의 우주적 보편성을 감안하여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로완 윌리엄스(Rowan Williams)는 사막의 독방에서 예배드리는 수도사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소개합니다. “수도사의 독방은 세 젊은이가 하느님(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한 바빌론의 용광로 같았다. 하느님(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구름 기둥 같았다.”⁷⁾

로완 윌리엄스는 예배자의 관조적 신실함(Contemplative Faithfulness), 즉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한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예배의 신비와 기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사막에서, 예상치 못하게 막다른 곳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예상치 못한 계기로 우리는 엿보게 될 것입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음을, 사막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음을.⁸⁾

마치 오늘날의 상황을 그린 듯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계기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드린다고 하여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초대교회로부터 믿음의 선조들이 담고자 했던 공동체적 예배의 본질을 주목할 필요가

6) 안선희, “예배 연구 주제로서의 ‘온라인 예배 실행,’” 〈신학과 실천〉 69(2020): p. 26. 안선희가 인용한 것은 다음 논문이다. 전명수, “정보화 사회와 종교문화의 변용-교회의 인터넷 활용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33(2003): p. 24.

7) 로완 윌리엄스, 《사막의 지혜》 민경찬, 이민희 옮김 (비아, 2019), 180. 무명모음집, 74에서 재인용.

8) 같은 책, 180.

있습니다. 예배당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드렸던 4세기 이전의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편적, 우주적 관점에서 관찰하면, 즉 본질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예배의 범주는 대단히 넓습니다. 공적 예배라는 가시적 울타리는 편의상의 구분일 뿐 교회나 구원과 같은 정작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절대적 범주로 기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석인원과 장소와 관계 없이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감사하고, 일상으로 가기 위한 강복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정신과 본질을 어느 예배에서나 오롯이 담을 수 있습니다.

무 자르듯 개인적 헌신 행위와 공적 예배를 극단적으로 나누지 말아야겠습니다. 공적인 예배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최소한의 순서와 절차도 없고 찬양은 모두 다 개인적인 감성적 표현에만 머무는 예배도 존재하고, 혼자, 혹은 두세 명도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만든 숫자나 편의상의 구분으로 예배의 진정성과 적합성을 속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안식일과 주일- 예배 시간의 문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대표적으로 구약의 출애굽기(20장)와 신명기(5:12~15)에 나옵니다. 잘 아는 대로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바트(Shabbat)는 ‘중지하다’, ‘멈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바로 쉬입니다. 주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쉬셨듯이 모든 피조물이 안식일에 쉬을 갖습니다. 안식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평등한 권리였으며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을 불안, 강요, 배타주의, 과중한 일에 저항하여 진정한 쉬를 통해 활력을 얻고 온전하게 회복되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날이라고 말합니다.⁹⁾ 옛새 동안 힘써 일하고 편안한 안식을 취하는 날이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이며,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기회이자 평등이 구현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으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23~28, 참고 마 12:1~8, 눅 6:1~5)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은 것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을 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명확하고 시원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치유와 회복의 날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일요일인데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날, 즉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떡을 나누었습니다.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심장한 날이 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안식일의 의미

9) 월터 브루그만, 《안식일은 저항이다》 박규태 옮김 (서울: 복있는 사람, 2015), 특별히 32, 95쪽을 참고하라.

를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새로운 소망을 품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겠다는 일종의 선언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율법적으로 반드시 주일에 드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 또한 안식과 회복에 맞추어져 있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코 안식일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첫째, 안식과 주일의 의미를 살리는 것, 둘째 거룩하게 지키는 것.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안식과 주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교회 밖에서 드려도 교회 안에서 드린 것과 같은가? 예배 공간과 교회론의 문제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으나 하루에 세 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일정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는커녕 위협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성전에 돌아가 예배드릴 날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기도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배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내면화하는 일에 더욱 힘썼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였으나 다니엘은 자신을 부르신 그곳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 중 어느 곳으로 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각기 자신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그런 혼란이 있을 법도 하죠.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라는 예배의 본질적 요소를 말씀하십니다.(요 4:21~24, 개역개정).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과연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가 아니고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배는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믿음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을 주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 가지 교회론에 대한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은 교회를 결정하는 물리적 ‘경계선’이 공간적, 교파적 개념으로부터 실존적, 공동체적 개념으로 즉, 비물리적 경계선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모이는 장소로서의 교회, 교파에 따라 분류되는 교회로부터 신앙의 고백과 성도의 삶이 교회의 정체성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래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의 가시적인 모습보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경계선을 넘어 커뮤니티(communitas)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 교회론이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¹⁰⁾ 다만 심리적 경계선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장소, 사귄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공간으로서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들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렇듯 공간의 예전적, 목양적 측면에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건물”로서의 교회를 절대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물리적인 장소로 국한하여 이해하는 방식은 대단히 편협한 것입니다. 이미 몇 백 년 전 영국성공회는 환자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성찬을 베풀기도 했으며 존 웨슬리는 들판에서 집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성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야외에서 성찬식이 열린다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자못 궁금합니다. 장소적 한계를 뛰어넘을 때 교회의 범주는 우주적으로 확대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쌓은 돌무더기에도 임하셨고, 모세가 신을 벗은 호렙산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던 모리아산에도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곳,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건물 위주의 교회관은 주일 교회에서의 예배와 주중의 일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거룩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언어와 행동방식의 괴리가 낳는 비극적 결과물은 신행불일치(信行不一致)의 이율배반적 삶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예배를 장려함으로써 주일과 주중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도 계시고 교회 건물 밖에도 계십니다.

5. 온라인으로 하는 세례와 성찬도 가능한가?

저는 교회에 정말 많은 경계선들이 존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혁 교수의 표현대로 교회는 “교리 수호 민병대”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¹¹⁾ 세례나 성찬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경계선에 집착하기보다 의미의 발견과 적용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리와 교회의 이런저런 기준들이 울타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울타리로 무엇을 지킬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초대 교회의 감독 제도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 제도 자체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이지요.

위와 같은 신학적 토대를 기초로 성찬의 문제에 접근한다면 성례전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은 중세의 사제와 평신도 간의 계급적 이해와 공간 분리 같은 심각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성찬식의 ‘안전한’ 집례를 위해 감시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¹²⁾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차별과 소외가 이루어져 왔고 심지어 편견과 갈등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중세 가톨릭교회에서는 성당에서 사제와 평신도의 공간을 분명하게 나누어놓았습니다. 사제들이 성찬식 중에 빵과 포도주를 들고 보일락 말

10) Alan Hirsch. 《잇혀진 교회의 길》, 오찬규 옮김 (아르카, 2020). 특별히 pp. 271~311을 보라.

11) 김진혁, 《질문하는 신학》(복있는 사람, 2019), p. 617.

12) 성찬식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배제에 대한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라. Edward Foley, “Eucharist, Postcolonial Theory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Practical Theologian Revisits the Jesus Table,” *International Journal of Practical Theology*. Volume 15, Issue 1 (August 2011): 57~73., Daniel Boyarin, “Hybridity and Heresy”, in *Postcolonial Studies and Beyond*, ed. Ania Loomba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5), pp. 339-58.

락 하여 신비감과 차별성을 갖게 됩니다.¹³⁾ 오죽했으면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빵과 잔을 더 높이 들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중세 가톨릭 사제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을 어떻게 독점해왔는지, 거룩한 구별이 소외와 차별로 왜곡되고 훼손되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단 성직자와 평신도만 나눈 것이 아니었지요. 성찬에 참여할 때의 자격 여부에 대해 교회는 지나치게 강하게 강조해왔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고전 11:27~29). 자격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구별을 차별로 왜곡할 가능성에 문을 열어주고 성찬의 본래적 정신인 자격 없는 이들이 은혜로 누리는 무조건적 환대를 가로막습니다.

로렌스 스투키(Laurence Hull Stookey)는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의 자격 여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침을 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단 말인가? 좀 더 엄밀히, 만일 합당하다면 은총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의미로 보자면 은총이란 합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다.”¹⁴⁾ 따라서 자신의 양심을 살피는 것도, 누가 자격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도 실은 은혜라는 용광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인간적 기준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찬의 신비와 은혜입니다. 성례전은 마술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 무엇이 아니라 신비이며 선물이고 초청입니다. 이 은혜로의 부르심이야말로 성례전의 정의이며 내용입니다.¹⁵⁾ 다른 요소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성찬을 바라본다면 장소, 방식, 집례자, 성찬 참여 자격은 사실 예배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성찬의 가능 여부도 위와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온라인 성찬은 교단이나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 목회적 결정에 따르며 되는 사안입니다. 성찬에 대한 신학적 입장의 다양성은 개신교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종교개혁가들만 해도 성찬에서의 임재 방식에 있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종교개혁가들의 고백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조주의적 획일화로 점철된 중세 가톨릭과의 근본적인 단절을 선언하는 구체적 증거로 여기고 다양한 의견의 자연스러운 발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개신교는 이렇듯 성찬의 임재 방식뿐 만 아니라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며 공존해왔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단 내에서도 교회의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6. 온라인 예배는 아무래도 개인적이 되는데 어떻게 공동체성을 개인 예배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교회 밖에서 혼자서 혹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경건 행위가 갖는 맹점은 바로 “주관적”이며

13) 예배 공간에서의 계급적 차별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담은 다음 저서를 참고하라. Jeanne Halgren Kilde, *Sacred Power, Sacred Space: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Architecture and Wo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49~50.

14) Laurence Hull Stookey,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가?, 김순환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2017), p. 53.

15) 기존의 성례전에 대한 논의가 사효론(ex opere operato), 인효론(ex opere operantis) 등 신학적 분석과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현대의 연구는 성찬의 의미와 정신에 대한 것들이 많음을 주목하라. Rowan Williams, *Being Christian: Baptism, Bible, Eucharist, Prayer*,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김기철 옮김 (복있는 사람, 2015), Nora Gallagher, *The Sacred Meal*. 《성찬: 거룩과 일상이 만나는 주님의 식탁》, 전의우 옮김 (IVP, 2012).

공동체성의 구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검증받을 기회도 없거니와 제가 앞서 고백한 대로 무질서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성의 결여는 온라인 예배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왔는지요? 예배에 참석하여 찬양을 구경하고 설교를 듣기만 한다면 온전히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평신도들이 매우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공동체성의 구현을 위한 예배 순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방송은 설교를 송출하고 시청자들이 그 설교를 보고 듣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명한 설교자, 대형교회의 예배에 조회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전체 예배를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료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한국 개신교의 예배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개인의 신앙고백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는 충실했으나 이웃과 세상의 아픔에는 무관심한 현상, 주일의 예배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주중의 삶에서는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명에는 소홀한 현상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 예배에서나 공예배에서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예배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일종의 파송식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족으로부터 지역사회와 멀리는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환대를 증언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되새기고 새로운 결심과 자세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모든 예배는 개인적임과 동시에 공적이고 공적이어야 합니다.

7.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그동안 나는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온라인 예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선 예배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수의 예배가 구독이 추가 되는 개인적 기도, 사건이 지나치게 많이 담긴 비복음적 설교, 예전적인 형식이나 신비에 대한 이해나 적용이 부족한 예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요는 대면이나 비대면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의 은혜를 바르게 실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둘째, 교회 전통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검증하고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력 기반의 디지털 자료들과 교회력을 중심으로 한 자료의 공유를 선호하고 추천합니다. 교회력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단히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그분과 거룩한 동행을 할 수 있으며, 교회의 전통이 담고 있는 유산들을 다른 교회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터넷 자료에 대한 분별력의 고양ی가 요구됩니다. 얇고 넓은 지식이 잠식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 과잉 현상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가짜 정보, 수준 낮은 정보에 대한 노출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가짜 뉴스의 심각성부터 위키피디아와 같은 근거가 부족한 자료의 난무가 갖는

위험성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도구의 쓰임새는 사용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분별의 지혜와 거룩한 영성의 고양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거짓된 정보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야겠습니다.

넷째, 결국 소통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인격적 만남입니다. 대면으로 인한 깊이 있는 사귄과 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대면이 아니어도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할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 밖의 예배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이며 궁극적인 형태의 “공동체 예배”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들을 설교와 예배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적 형식(instrumental forms)으로 선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문명이 이 시대의 바벨탑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잃지 말고 늘 인간의 근본적 죄성과 불완전함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환대와 배려는 교회가 장소와 환경을 뛰어넘어 온전한 예배를 논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할 가치들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계선의 정체는 무엇인지, 교회의 사역이 그러한 왜곡된 경계선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¹⁶⁾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생활신앙으로 나아가는 예배야말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와서 쉬는 주차장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 즉 예배자로서 충전하고 파송 받는 주유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율법적 구분보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밖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 대안을 찾아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좋은 사례들을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일 것입니다.

16) Edward Foley, 위의 글.

【 실천적 모색 - 발제1 】
온라인 교회는 가능한가?

양희삼 카타콤교회 담임목사
예배의 향기 대표
유튜브 '양희삼TV-카타콤' 운영

1. 온라인 교회의 필요성

ㄱ. 개인적인 필요

- a. 8년간의 방송을 통한 카타콤 방송 청취자와 카타콤 교회의 이중 구조의 통합
- b. 월 250만 원의 월세

ㄴ. 시대적 필요

- a.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전이
; 종교생활 -> 삶
- b. 가나안 성도
- c. 자본주의의 치명적 한계인 부동산 문제 극복
; 건물이 없는 회사 - 본사도 없다고 한다.

2. 교회의 본질에 배치되지 않는가?

- ㄱ. 예배(말씀), 양육, 교제, 선교
- ㄴ. 온라인만의 한계를 보완

3. 온라인 교회가 성공하는 길

- ㄱ. 콘텐츠가 확실해야 한다.
예) 민주시민, 복음의 본질, 교회 내부 비판
- ㄴ. 온라인 교회도 교회다 - 교회의 구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4. 그럼에도 교회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필요하다.

- ㄱ. 리더십의 권위에 대한 인정 - 의사 결정 기구 가능한 수평적 리더십을 지향
- ㄴ.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
- 헌금(십일조 혹은 정한 헌금), 봉사(오프라인 모임 및 수련회), 사회 참여
- ㄷ. 양육 시스템 - 리더 양육
- ㄹ. 교회 멤버와 온라인 예배 참석자 구분

5. 양육과 교제

- ㄱ. 교회 조직을 위한 양육, 부품이 되는 제자 훈련을 지양
- ㄴ. 행복과 자유함을 전하기 위한 목표
- ㄷ. 온라인 성경공부를 통한 양육과 교제

6. 실제적인 모임

- ㄱ. 주일 온라인 예배
- ㄴ. 양육을 위한 성경공부
- ㄷ. 월 1회 오프 모임 및 예배

7. 분화의 방향성

- ㄱ. 목사의 양육을 통해 리더를 선발
- ㄴ. 리더 선발 후 양육 팀 운영
- ㄷ. 소그룹을 만들되 사역의 현장이 있도록
예) 싱글 미니스트리, 증독 등

8. 교회란 무엇인가?

- ㄱ. 건물이 아닌 사람
- ㄴ. 온라인으로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온라인으로 성경공부를 통해 사람을 세워간다.

【 실천적 모색 - 발제2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서

조주희 성암교회 담임목사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더불어배움 운영이사

교회와 예배에 대한 새로운 도전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연구하는 모든 이들이 거의 명제처럼 사용하는 하나의 문구가 있다. “세계는 코로나19(COVID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다. ‘빅 체인지(Big Change)’라는 말이 보여 주듯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 속에 놓여있다. 이 변화는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도 예외 없이 혼란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네이트 실버의 《신호와 소음》에도 나타나 있듯이 불확실성이 증대될 때 ‘우리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재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의미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 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도 과거의 패러다임을 잃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패러다임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미래에 대응하는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신학적인 검토와 그 전략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노력에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팬데믹 시점에서 교회 공동체와 예배에 대한 이해를 과거의 경험이나 신학에만 묶어 놓지 말고 성경을 근거로 한 현재 상황에 대한 적합성을 가진 이해의 확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몇 가지 질문들

첫째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고후 10:4)라고 선포한다. 그렇다면 교회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둘째는 예배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하나의 규범을 넘어설 수 없는가? 그리고 나아가 예배는 물리적 공간과 모임의 한계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신비함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믿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

셋째는 그동안의 예배가 회중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현재로선 회중은 흩어져 있으나 모두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에 그 하나님을 통하여 회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비한 연합의 경험을 할 기회를 가진 것을 아닐까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가능하긴 하나 현재 한국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와 사회와의 긴장 관계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인가를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이 시점에서의 교회 에너지 사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다섯째, 교회는 여전히 이 시점에도 지역사회를 교회의 선교적 대상과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사회적 관계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말아야 하는 선교적 과제와 관련된 질문이기도 하다.

성암교회의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들

1. 온라인 예배, 교육, 심방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있다. 문제는 관점이다. 성암교회의 두 가지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예배에 있어서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어도 방법의 변화가 본질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했다. 온라인을 통한 예배가 갖는 한계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예배는 방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예배는 물리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측면이 있다. 영적인 측면이 물리적 측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가 문화적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면 문화에 대한 이해가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둘째는 교육에 관한 부분이다. 미래학자 제이슨 쉐커(Jason Shenker)는 그의 책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미래의 교육에 대하여 세 가지 트렌드를 말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첫 번째 트렌드는 교육 길드 시스템을 해체함으로써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의 비용을 줄인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교회가 교육 비용을 줄이면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의 가능성을 온라인 교육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번째 트렌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교육에서의 선택의 자율성이 확대와 쌍방향성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이 가능한 상황을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세 번째 트렌드는 학습 경험을 향상할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교육대상을 단순히 대상화하기보다는 함께 학습해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코비드19 상황은 교회학교를 포함한 교회 교육의 틀을 새롭게 짤 기회이기도 하다.

셋째는 교제이다. 온라인을 통한 교제는 교제의 확장성을 확인할 기회이다. 그동안의 교제는 물리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교제의 단점은 물리적인 만남이 불가능하면 교제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온라인을 통한 만남은 충분히 보충적 교제의 수단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오히려 온라인을 통한 교제를 물리적 교제를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교회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하는 듀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적 변화와 그동안의 물리적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기회를 교회 공동체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지역 사회를 위한 노력들

1) 선제적 소통

지역사회는 교회의 선교적 대상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교회가 주는 메시지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의 소통이 중요하다.

첫째는 교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포스터나 현수막 등 다양한 표시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교회의 결정과 활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는 지자체와 방역당국과의 선제적 소통이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기보다는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교회 공동체에게는 교회의 건강한 관리에 대한 확신을, 지역사회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긴밀한 협의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수시로 변하는 방역당국 지침으로 인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했다. 이 긴밀한 협의에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수용하기도 하지만 돌봄이 있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불가피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설득함으로 수용과 협력의 장을 만들어 냈다.

3. 성암교회의 실제적 노력

1) 대면, 비대면에서의 질서 세우는 기준

- 정부와 지자체의 방침
- 상회(총회, 노회)의 지침
- 당회의 결정
- 각 팀과 교회학교의 회의 결과

2) 줌을 통한 기회: 목회자들의 줌 사용을 위한 노력 필요

- 성경공부: 다양한 세대 참여, 집중력 향상의 효과
- 온라인 심방: 온라인상의 교제 가능성 확인
- 일부 교회학교 예배: 유튜브와 병행

3) 지역사회와의 교제

- 온라인 음악회: 교회와 지역의 스토리가 담긴 음악회, 과거의 팬데믹 속에서의 음악
- 토요일 돌봄 진행: 온라인으로 학습자의 경험 중심의 교육 콘텐츠로 진행
- 독거 어르신 반찬 제공 서비스
- 다섯콩 도서관, 바오밥 카페, 방과후교실, 청소년 케어 프로그램 등은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비대면과 대면 운영 결정

【 실천적 모색 - 발제3 】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종현 만나 미디어교회 담당목사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출현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그 논의가 앞당겨진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2019년 2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세계 1위다.¹⁷⁾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8 언론수용자의식조사’를 보면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인터넷(PC와 모바일)과 메신저를 이용하는 시간은 161.8분이다.¹⁸⁾ 즉 한국인 100명 중 95명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시간 42분 정도를 온라인상에서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섬기고 있고,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사람들은 이미 그 어떤 곳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목회와 선교활동을 했다면 유튜브로 활동했을 것이다.

만나교회는 2018년 4월 ‘미디어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다. 본고에서는 만나미디어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형태에 이르렀는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나눌 것이다.

만나교회와 미디어교회가 걸어온 길 - “만나교회”와 “미디어교회”의 관계 변화

만나미디어교회가 현재의 형태를 갖추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네 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1단계 - 예배 라이브 스트리밍

첫 번째 단계는 예배 라이브 스트리밍 단계다. 만나교회는 십 여 년 전부터 대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학, 이민, 질병, 출산 등으로 인해 현장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만나 성도들을 위한 배려였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2) 2단계 - ‘온라인 교회’의 시작, “미디어교회”

두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온라인 교회가 시작된 시점이다.

2018년 4월 만나교회는 “미디어교회”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교회를 설립하게 된다.

17) Kyle Taylor and Laura Silver, 「Smartphone Ownership Is Growing Rapidly Around the World, but Not Always Equally」, Pew Research Center, 2019, p.3.

18) 「2018 언론수용자의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p.31.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거나 질병과 출산, 주일 근무 등으로 인해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없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상처로 예배가 멈춰있는 이 땅의 가나안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이었다. 교회 건물에서는 떠나 있으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만 드렸다면, 2단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목양적인 돌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온라인을 통해 등록한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묶어 리더를 배정한 후 목상을 함께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공동체를 제공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경험이었다. 이들이 다시 오프라인 교회 공동체로 소속되는 것이 미디어교회의 목표였다.

3) 3단계 : 만나-미디어교회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된 구조로 운영되던 미디어교회가 만나교회와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이전까지 미디어교회는 교회 담장 너머에 있는, 그래서 예배와 목양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나 만나교회 안에도 예배와 목양에서 소외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만나교회 안에 “미디어동산”이라는 새로운 교구를 만들게 된다. 이로써 미디어교회는 만나교회 담장 너머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교회 등록 성도들, 모두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

4) 4단계 : 만나교회

네 번째 단계는 현재 만나교회가 취하고 있는 형태로서 교회 조직 전체가 온라인 역량을 갖추는 단계로 현재 진행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장년/어린이 예배, 셀/목장/구역 모임은 물론이고, 중보기도, 양육과 훈련, 단기선교, 노방전도, 복지시설 섬김 등 교회에서 진행되던 모든 사역이 멈췄다. 때문에 만나교회는 예배, 중보기도, 목양, 교육, 훈련, 선교, 나눔, 구제 등 교회가 하고 있었던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이전까지는 미디어교회에서만 온라인 예배와 목양, 훈련을 담당했다면 이제 만나교회에 소속된 모든 부서가 온라인 목회를 하고 있다.

만나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 -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 만나교회는 모든 부서가 온라인 역량을 갖춰 나가며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 모든 사역의 목표는 하나다. 바로 ‘예배가 계속되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제 만나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1) 교회 건물에서 떠나 있어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매주 교회당에 모여 드리던 정규 예배를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드렸던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 예배국은 온라인을 통해 성도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성도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해졌고, 다양한 도전과 시도가 있었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실시간 채팅을 운영했고, 화상회의 솔루션을 사용하여 비대면 환경에서 대면 예배를 준비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성장을 시도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열매도 있었다. 평소에는 예배당에 앉아 설교만 듣고 조용히 돌아가던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채팅창을 통해 표현하기 시작했다.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 소통의 질은

오히려 높아졌던 것이다. 새벽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성도들의 수는 현장예배 때보다 급격히 증가했으며, 온라인 성찬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일하시는 성령님의 만지심을 체험했다.

골방에서 기도 카드를 붙들고 기도하던 중보기도팀이 채팅창에 들어와 성도들이 남기는 기도 제목에 일일이 댓글을 달며 함께 기도하니 성도 간 기도의 끈이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며 만나의 성도들에게 확실한 하나의 메시지가 각인되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2)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에 ‘삶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교회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다.

몇몇 교회와 목회자들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만나교회 훈련국, 목양국, 교육국, 청년국에서는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로 드러질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훈련국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성경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 바이블을 활용한 온라인 통독 소그룹을 운영함으로써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조금씩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목양국은 기존의 셀/구역/목장 심방과 리더그룹 교육을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하여 진행하는 한편, 목양 구조의 변화를 실시했다. “살롱나무”¹⁹⁾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시적, 자발적 소그룹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의 셀/구역/목장이 비자발적이고 장기적인 소그룹이라면 이 살롱나무는 성도들의 관심사에 따라 몇 개의 소그룹을 구성하고 신청자를 받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소그룹이다.

교육국은 부모와 함께 하는 신앙교육을 강화했다.²⁰⁾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교육부서다.

청소년과 아동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부모밖에 없다. 이에 온라인 예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부모들이 먼저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과 분량의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다. 또한 부모와 함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0시 실시간으로 성경을 함께 읽기 시작했다.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여 교안을 다운로드하고, 퀴즈도 풀 수 있게 했다.

청년국은 “Re:HOPE 챌린지”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²¹⁾

다시(Re)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고(Honesty),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며(Other first), 축복의 통로(Passage)가 되고, 언제나 누군가를 격려(Encourage) 하는 사람이 되고자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단순히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챌린지를 사진이나 영상

19) 살롱문화 트렌드에 맞춰 신앙적인 범위 안에서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를 존중하며 교체할 수 있도록 개설한 소그룹이다.

20) Youtube에서 “만나교회교육국”을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21) 카카오톡에서 “만청 커넥트”를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으로 짝어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주도록 기획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코로나19를 통해 교회 밖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예배로 드리며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만나교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 한국교회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각 교회에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

어떤 교회는 구제에 집중하고, 또 다른 어떤 교회는 제자 양육에 많은 역량을 투입한다.

만나교회는 '미디어선교'라는 사명을 주셨다. 오래전부터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미디어선교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하나님께서는 만나교회에 한국교회를 미디어로 섬기라는 사명을 주셨다.

현재 만나교회는 '미디어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사역이 필수가 되어버린 이때 예배가 멈춰버린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자 한다.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이것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원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은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도 동참한다. 아니 동참해 준다. 그러나 평소 신앙생활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들이 문제다. 신앙적 안일함과 온라인 교회가 주는 편안함이 만나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또 다른 양상은 '디지털디바이드(정보격차)'와 맞물려 나타난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고령의 성도들은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온라인 사역을 진행해도 그들은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목회자들이 성경보다 카메라와 더 가까이 지내고 있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교회의 치열한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이 시기에 해답과 바른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시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도전과 실패가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신나게 도전하고 실패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2020 온택트 문화포럼

〈2020 예배자, 온라인을 만나다: 온라인 교회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논의〉

발행일 2020.10.20.

발행처 문화선교연구원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대신동), B1. Tel. 02-743-2535 www.cricum.org

이 자료집의 내용은 문화선교연구원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실 수 없습니다.